

대한상의, 인디아 화학비료부 차관 초청

대한상공회의소가 인디아 화학비료부 차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월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조스 씨리악 인디아 화학비료부 차관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조스 씨리악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인디아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 기업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인디아의 석유화학산업에 한국 기업이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국은 석유화학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세계적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인디아의 경제성장 의지와 결합한다면 양국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조스 씨리악 차관과 이동근 부회장 외에도 윤옥섭 효성 화학부문 사장, 김인영 한화케미칼 상무, 노충석 동남석유화학 사장, 장세영 태광산업 상무, 이근식 SKC 상무 등 국내 주요 화학기업 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11/10/05>